

[종합·국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호남권 핵심 선도사업 수정 가능”

17일 서울 중앙우체국 21층에서 이뤄진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2 광역경제권 계획과 관련한 호남권의 반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광역경제권 재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 조기집행에 나설 예정이며 각 부처에서도 광역경제권 관련 사업의 세부 작업에 나서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미 광역경제권 사업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국

회를 통과하지 않는다 해도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호남권 핵심 선도산업의 항목 수정은 가능한가.

▲물론이다. 각 광역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또, 호남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다.

-정부측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에도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다. 초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호남권은 여수박람회장을 주축으로 한 남해안 선벨트와 새만금 사업을 주축으로 한 서해안 벨트로 묶여져 있다. 여기에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등이 이루어진다면 호남권의 미래는 밝다.

-녹색성장이 새로운 경제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전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투자,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은 햇빛이 많고 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 자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임동욱기자 tuim@



중국 개방개혁 30주년 기념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됐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 기념식에서 중국이 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개방 더 확대”

중 30주년 기념행사

중국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연 초부터 전국에서 거행해온 기념행사가 18일 지도부가 총출동한 행사를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요 방客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후 주석은 기념사에서 “개혁개방 30년간 경제규모는 세계 4위로, 무역 규모는 세계 3위로 올라갈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인민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하고 “과거 3대에 걸친 중국 지도부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같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의 개혁개방이란 위대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돌발 사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더욱 냉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후 주석은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개혁을 강화해 나가겠지만 서방의 정치체제를 모방하지는 않고 독자적인 중국적 특색을 지닌 정치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1조달러 경기부양 나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자문팀이 향후 2년 동안 최대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는 자문팀이 당초 검토했던 6천억달러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경기부양책이다.

자문팀은 최근 오바마 당선인이 내

건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대선에서 경쟁했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측 인사들을 비롯해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경제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구했다.

오바마 자문팀이 만났던 많은 경제전문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최대 2년간 최대 1조달러를 투입하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문팀은 아직 최종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많은 경제전문가가 전한 조언은 자문팀이 이전에 검토했던 수준을 훨씬 웃도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다.

자문팀이 의견을 나눈 경제전문가 중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1기

경제정책보좌관 로런스 린제이, 허버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년 동안 연간 4천억달러의 투입을 권고했고, 린제이는 8천억달러에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고 경제자문팀에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경제자문팀이 고려하고 있는 이 경기부양책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7천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법안과는 별도의 것이다. /연합뉴스

미국인 두번 울린 ‘전투기 참사’ 한인

운동원세 조종사 용서 이어 후원금 기부

미국 전투기 추락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재미동포 운동원(37) 씨가 조종사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 많은 사람이 보내준 후원금을 자신단체에 기부하기로 해 다시 한번 감동을 주고 있다.

운동원 씨는 최근 미주중앙일보

와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나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아내(이영미 씨)가 고운 마음으로 생전에 매달 기부해 오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보내 그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윤 씨는 “수많은 분이 교회와 은행을 통해 수백 통의 위로 편지와 후원금을 보내왔다. 위로편지 하나 하나에 감사카드를 보내고 싶지만 인제가 될지 모르겠다”며 “감사할 따름이며 그에 보답하고자 하루빨리 추스르고 힘을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주위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고 잘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문득문득 속구치는 슬픔을 참기 힘들다”며 “마음을 굳게 다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전국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주)옥션코리아 친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Gyeongsang, Gyeonggi, and Seoul.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성. 백암 울릉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3만 5천원. Travel package details including itinerary, meals, and prices.